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한국 해상풍력의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2019 해상풍력 국제포럼'이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준 군산시장,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 등을 비롯하여 국내 및 해외 해상풍력 전문가들이 개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상풍력의 미래, 전북에서 만나다

전북도,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최... 새로운 비전과 기술개발목표 공유의 장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군산시(시장 김일준)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 해상풍력의 도전과제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2019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료연구소와 (사)한국풍력에너지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주한덴마크대사관, 새만금개발청,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덴마크의 VESTAS社, 미국의 COWI社, 독일의 Aldon社, 독일의 Windinnovation社,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스, 젠텍 등)의 해상풍력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해상풍력 국제포럼은 지난해 '새만금 비전 선포식(2018.10.30.)'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비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해상풍력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나아가 기술적, 사업적 도전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만금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분야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되길 바라며,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송하진 도지사는 주한 덴마크대사와의 면담시간을 갖고, 향후 전라북도와 덴마크 간 활발한 정책 교류 및 상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발전 사례, 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및 지역정책 교류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상호 적극 협력해 가기로 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이경호 팀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오순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시스템분과 및 하부구조·설치분과의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연사발표에 이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과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스템분과에서는 두산중공업(주), 효성중공업(주), 유니스(주)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 현황 및 풍력사업, 해상풍력터빈의 개발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으며, 하부구조 및 설치분과에서는 미국COWI社, 젠텍,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인근해역 바람 터빈을 위한 기초디자인, 근해 풍력 터빈을 위한 지지구조의 설계 방법론 및 절차, 해상풍력터빈 실증 등에 관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사 2일차(25일)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분과, 블레이드 분과, 지역상생방안 분과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이낙연 총리, 오늘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터(RIC)를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이날 완주군 봉동읍 전



북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찾아 이흥기 소장(과학기술대학장)으로부터 수소 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장영달 우석대 총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

일 완주군수, 참여기업 임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수소 관련 생산품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2008년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로 선정된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는 미래 수소 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운영  
무료 희망법률상담·규제개혁 등 기존 법률서비스 적극 추진

전북도가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도(법무행정과) 내에 공무원(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 후,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무료 희망법률상담'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월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말,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

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무료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하고, 시군에서 행하는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서 등 서류작성, 구술심리 과) 내에 공무원(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 후,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무료 희망법률상담'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월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말,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

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무료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하고, 시군에서 행하는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서 등 서류작성, 구술심리 과) 내에 공무원(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 후,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무료 희망법률상담'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월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말,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

'무료 희망법률상담'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월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말,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

### 전북농기원, 상추 상품종 현장평가회 열어... 기능성 증진 품종 선발에 주력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24일 전북도의 상추 주산단지인 완주 비봉면 재배농가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상추 지역적응 및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국내 육성 상추의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상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매혹흑치마', '진미적치마' 등 국내 육성 상품종 시범재배를 통해 우수성을 평가하고, 조기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배농가, 종묘회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상추 품종들의 농가 현장반응과 재배적응성, 식미, 상품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평가했다.

지금까지 상추 재배농가는 고온 재배시 생리장해, 추대(장다리), 내병성, 엽육의 두께, 안정된 적색발현 품종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번 상품종 평가회를 통해 소개하는 '진미적치마'와 '매혹흑치마'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상품종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날 평가회

를 통해 상추작목반 소속 농가와 소비자의 반응을 청취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주산단지에 우선적으로 상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범혜량 연구사는 "국내 육성 상추의 로컬푸드 등 국내 시장 반응을 사전에 조사하고, 농업인·소비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평가를 통해 국내 육성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조기 보급함으로써 농민 소득 향상과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전북인재육성재단, 향토인재 장학생 116명 선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9년 향토인재 장학생 116명을 선발했다.

지난 2월 25일 선발계획을 발표하고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접수한 결과 총 559명이 접수하여 평균 5.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평가 심사하여 시·군별 배정

인원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출신 대학생 1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등록금 2백만 원 범위내에서 1, 2학기 장학금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5월중에 향토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1

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00년부터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총 1만8,235명에게 600억 3,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송현만)은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TP, 엔지니어링 설계기반 전문기술 기업지원 나서

(재)전북테크노파크(TP)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컨설팅 수행 전문기업(기관) 모집'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익산시에 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

터 구축(전북지역 제조업 설계지원사업) 일환으로 전북 도내 기계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제품생산, 제품개선 및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설계

/해석) 지원' 사업과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통한 사업화 촉진이 목표다. 이번 기업 지원사업 내용은 ▲설계지원 ▲해석지원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며, 컨설팅 수행 전문 기업과 직접 기업을 방문해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진성 기자